마중여행사 문의:02-730-2270
시베리아횡단열차 8일
타고 바이칼호수 가다!
8/23 출발

비즈 패트롤 | '동맹휴업'은 넘겼지만 계속되는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정부와 본사로 공 넘긴 편의점주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대책 요구
단체행동에 대해 신중한 자세 변화
소상공인연합회 "광화문서 농성"


전국편의점가맹협회 관계자들이 16일 서울 성북구 협회 사무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에 최저임금 차등적용, 가맹수수료인하 등의 후속 대책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이하 전편협)는 16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이 10.9% 인상된 시급 835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정부와 본사의 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편협은 이날 구체적인 대책으로 최저임금 차등 적용, 가맹수수료 인하, 근접 출점 중단, 카드수수료 인하 등을 주장했다. 그러나 당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책으로 거론했던 동맹휴업이나 심야영업 중단, 심야가격 할증, 카드결제 거부 등의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진행하지 않겠다"며 한 발짝 물러난 자세를 보였다.

전편협은 "을과 을의 싸움을 절대 원치 않는다"며 "위기에 처한 업계의 이슈에 대해 정부와 본사에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한 만큼 대안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단체행동을 진행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전편협이 동맹휴업 등 기존의 강경한 주장을 이번에 강조하지 않은 것은 개인사업자인 가맹점주들이 이익단체인 전편협의 결정을 얼마나 따를지 불투명하다는 현실적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한 고용주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불이행을 선언한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 연대'를 구성하고 서울 광화문 천막농성과 대규모 집회 등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이렇게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이 거세자 정부도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가맹점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외식업·편의점 분야의 6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으며, 200개 대형 가맹본부 및 이들과 거래하는 1만 2000개의 가맹점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해 법위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보겠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는 가맹점주 단체신고제를 도입하고 신고된 점주 단체가 거래조건에 대해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일정 기한 이내에 반드시 협의를 개시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겠다"며,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가맹점주의 부담을 덜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한 노력을 계속 하겠다"고 말했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햇반컵반', 1000억원대 메가 브랜드로 키운다

〈CJ제일제당〉 〈연매출〉

3년만에 1억개 판매…간편식 시장 주도

CJ제일제당의 '햇반컵반'(사진)이 출시 3년 만에 누적판매 1억 개를 돌파했다. 누적매출도 2000억원(소비자가 환산기준)을 넘었다.

햇반컵반은 출시 초반 1~2인 가구에 집중됐던 구매층이 전 가구, 전 연령대로 확대되면서 상온 간편식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2015년 출시 첫 해 200억원대의 매출을 달성했고, 2016년에는 500억원대의 매출을 기록하며 가파르게 성장했다. 지난해에 800억원을 훌쩍 뛰어 넘었으며 현재 시장 점유율이 60%대로 압도적 1위다. 대표 제품인 '미역국밥'과 '강된장 보리비빔밥'도 각각 누적 판매 1500만개, 1000만개를 기록하고 있다.



'햇반컵반'이 주도하면서 상온 간편식 시장 규모도 커졌다. 2014년에는 200억원대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1000억원대로 추정되며, 연말에는 15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CJ제일제당은 누적판매 1억개 돌파를 기념해 26일부터 배우 박보검을 모델로 디자인한 '스페셜 한정판 에디션' 7종을 선보인다. 연내 추가 신제품을 출시하는 등 '햇반컵반' 소비 확대에 집중해 올해 '햇반컵반'을 1000억원대 메가 브랜드로 성장시킨다는 방침이다.

정영철 CJ제일제당 HMR마케팅담당 부장은 "앞으로도 마케팅과 R&D 등에 자원을 집중하며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을 이끌어가는 독보적인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안영배 사장 "소통 협업으로 한국관광 질적 성장 기여"

"조직 기구와 문화를 개편해 한국 관광이 한 단계 발전하는데 기여하겠다."

5월17일 취임한 안영배(사진)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16일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4차 산업혁명과 한반도 평화시대에 대비한 새로운 관광 목표를 밝혔다.

안영배 사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소통과 협업을 먼저 강조했다. 안 사장은 "직원들과 소통하면서 공사의 과제를 함께 고민하고 있다"며 "내부 부서간 협업은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 RTO(지역관광공사), 관광업계 등 외부 많은 기관들과 협업을 통해 한국관광의 질적인 발전을 이루려 한다"고 밝혔다.



특히 관광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관광산업본부 산하에 관광일자리실(가칭)을 두고, 관광 마케팅과 관련된 빅데이터를 생산하는 관광 빅데이터 센터와 한반도 평화 시대에 대비한 한반도 관광센터를 만들겠다는 청사진도 공개했다.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올해는 10만명 응모에 2만여 명을 지원하는 데 그쳤지만 앞으로 지원하는 인원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기획재정부등 관련부처와 이와 관련해 협의를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재범 기자

한 눈으로 보는 경제

16일

코스피지수	2301.99 ▼	-8.91
코스닥지수	825.71 ▼	-2.18
中 상하이 종합	2814.04 ▼	-17.14
국고채 금리 (3년물, 연%)	2.09 ▼	-0.02
환율 (원 · 달러)	1128.50 ▼	-4.50
국내금값 (원/그램 g)	4만5126.46 ▼	-112.43

LGU+ 새 대표에 하현회 부회장 선임



LG유플러스는 16일 이사회를 열고 신임 최고경영자(CEO)에 하현회(사진) ㈜LG 대표이사 부회장을 선임했다. 하 부회장은 2012년부터 2년 동안 (주)LG 시너지팀장으로 재직했고, 2015년부터는 ㈜LG 대표이사를 맡았다. 2018년 ㈜LG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LG유플러스는 하 부회장이 2015년부터 LG유플러스의 이사회 멤버로 활동하면서 모바일 비디오,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5G 등 통신산업 변화에 대한 이해가 깊다며 LG유플러스를 4차 산업혁명시대의 '퍼스트 무버'로 이끌어나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김명근 기자

한국타이어, '최고의 지속가능경영 기업'

한국타이어가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 르노그룹이 개최한 '올해의 협력사상' 시상식에서 최고의 지속가능경영 기업으로 선정됐다. '올해의 협력사상'은 르노 그룹이 매년 전 세계 협력업체 가운데 부문별로 가장 주목할 만한 가치를 창출한 우수 업체를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다. 한국타이어는 환경, 안전보건, 인권·윤리 경영, 기후변화 대응 등 다방면에 걸친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평가하는 '구매 지속가능성' 부문에서 우수 업체로 이름을 올렸다.

원성열 기자



교육·퍼즐

에듀윌 공인중개사 100일 합격반 운영 강주현의 퍼즐월드 WWW.경품광고퀴즈.kr WWW.매직스도쿠.kr

공인중개사 1차 시험의 출제 범위와 과목별 전략은?

10월 27일 시행 예정인 공인중개사 시험이 약 3달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1·2차 시험을 모두 준비하는 수험생도 있겠지만 이제 막 시작했거나 공부할 시간이 부족해 1차에 주력하는 수험생도 많을 터.

공인중개사 1차 과목은 부동산학개론과 민법으로 구성돼 있다. 각각 40문제씩이다.

부동산학개론 과목의 출제 범위는 부동산학 총론, 각론, 감정평가론 등으로 이 중 각론에서 80% 가까이 출제된다.

부동산학개론은 주로 법률 위주로 구성된 다른 공인중개사 과목과 달리 사회과학을 다루고 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용어나 표현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득점에 도움이 된다. 출제 비중이 매우 높은 부동산학각론은 전 범위에서 고르게 출제되므로 전체적인 체계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다른 1차 과목인 민법은 민법 총칙, 물권법, 계약법과 민사특별법 등이 출제된다. 이 중 민법 관련 내용에서 85%가 출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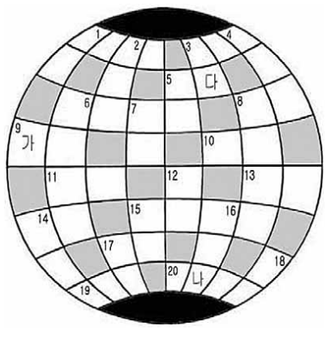
민법은 모든 법 관련 과목의 기초가 되는 과목으로 시험의 75% 이상은 판례 문제이므로 이에 집중 투자를 해야 한다. 특히 사례를 다각도로 묻는 문제에서 당락이 결정되므로 이를 충분히 익히고 연습해야 한다.

에듀윌은 2018년 시험 당일까지 무한수강이 가능한 '100일 합격반'을 운영 중이다. 이 과정은 1차 대비반, 2차 대비반, 1+2차 종합반 등 필요에 따라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전국 12개 지역에 공인중개사 직영학원을 운영 중이며 올해 안에 신림동, 일산, 광주, 대구 등에 학원을 추가로 오픈할 계획이다.

이수진 기자 sujinl22@donga.com

다음 문제의 열쇠를 잘 읽고 빈칸에 알맞은 낱말을 써 넣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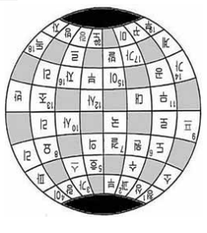
■ 낱말문제



■ 가로 열쇠 01.젊어서 과부가 된 여자. "ㅇ상ㅇ부" 03.바지 따위에서 다리가 들어가게 된 곳. 05.고무·비닐 등으로 자유롭게 휘어지도록 만든 관. 06.의형제를 맺음을 이르는 말. "도ㅇ결ㅇ" 08.음식을 일정한 방법으로 만듦. 또는 그 음식. 09.어떤 일을 전문으로 하거나 그런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 또는 직업 선수. 10.국수·새끼·실 따위의 뭉치를 세는 단위. 11.노래·춤·연극 등을 공연하기 위하여 관람석 앞에 좀 높게 만든 단. 13.아침밥. 14.원자재나 반제품에 손을 더 대어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일. 15.이불과 요. 17.머리털 따위로 머리 모양을 만들어 쓰거나 붙이는 가짜 머리. 19.찹쌀가루·밀가루·수수 가루 따위를 반죽해 넓고 둥글게 번철에 지진 떡. 20.행동(行動)이나 생각하는 것이 제멋대로임.

■ 세로 열쇠 01.쓸고 닦아서 깨끗이 함. 02.과실나무를 재배하는 농원. 03.연료로 사용하는 기체. 04.나무나 풀의 살아 있는 낱 잎. 05.친절한 마음씨. 또는 좋게 생각해 주는 마음. 06.헛되이 애만 쓰고 공을 들인 보람이 없음. 07.일이 귀결되는 마당. 08.일정한 방향이 없이 요 곳으로 조 곳으로. 12.'스승'을 높여 일컫는 말. 14.집안 살림의 수입·지출을 적는 장부. 15.머리털을 깎아 다듬음. 16.얇은 쇠붙이 따위가 부딪쳐 울리는 소리. 17.음식에 양념·식료품·향신료 등을 넣어 맛이 더 나게 함. 18.책·신문·잡지 따위의 출판물을 읽는 사람.

■ 낱말정답



단어 이어가기: 낱말을 모두 푼 다음 **가,나,다**를 이어놓으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국가 이름이 됩니다.